

지역 매아리

부안군, 악취저감사업 탄력

부안군은 2020년도 악취저감사업과 관련 해서 도비 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부안군의 악취저감사업비 37억원 중 11억원을 도비로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은 이번에 확보된 도비를 △탈취탑 지원사업 3억9천만원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설치사업 1억8천만원 △바이오카터 설치사업 3억원 △악취배출시설 밀폐화사업 1억5천만원 △악취도나타링 설치사업 9천만원 등 사업에 11억원을 편성·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부안군에서는 악취방지를 위하여 악취방지법 운영과 악취저감제 보급 등을 시행하고 있고 탈취탑 설치 및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부안군 자체예산만으로 시행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도비 11억원 확보로 내년도 부안군 악취저감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

부안군 환경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은 지난 8월부터 전라북도도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동분서주 해 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악취없는 청정한 부안군 실현이 중요 군정방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감독해 왔다"며, "부안군민 모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28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원신청 접수

부안군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받는다.

올해 상반기에 38억9000만원의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하반기 동일한 예산으로 4대에 한해 구매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1세당 1,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 부안군에 주소를 둔 주민,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 세대(기업)당 1대만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방식은 사회적 취약계층 25%(1대)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신청자가 선정대상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진행되며, 구매신청자와 해당 자동차 영업소로 통보한다.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 미 출고 시 자격이 취소되므로, 전기차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부안군청 관계자는 "전기차 운행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연간 1.4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어 지속적으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 샘고을 시장에서 한판 놀자!

## 오늘 '샘고을시장 한입먹거리 페스티벌' 개최

'샘고을시장 한입먹거리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19일까지 정읍 샘고을 시장 다목적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전통시장 홍보와 고객 유입을 통해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여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0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시장인 샘고을시장에서 '한입 먹고! 한판 놀자!'라는 주제로 가을 축제 기간에 맞춰 개최된다.

축제는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과 다양한 메뉴의 먹거리와 콘텐츠로 야심차게 준비됐다.

또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다채로운 무대 공연과 이벤트로 시민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오늘 오후 4시부터 개막식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귀리비빔밥 나눔잔치'와 '도전! 샘고을가네스', '나도 한입만!'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트로트 콘서트에는 남궁옥분과 소명, 레이디티 등 인기 가수가 출연해 가을밤 흥겨운 분위기를 선사한다.

19일에는 총상금 150만원이 걸린 시민노래자랑 '샘고을시장 스타킹'이 열리며 히든싱어 출연 가수의 축하 공연이 진행된다.

또 아이돌그룹 비타민엔젤이 출연하는 '샘고을 청소년 음악회'와 짝꿍경매, 샘고을 미추리, 단풍비누 만들기, 직거래장터 등 판매 및 체험행사도 펼쳐진다.

고창호 샘고을시장 상인회장은 "친절과 정결함으로 손님들을 맞이해 다시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겠다"며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과 관람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샘고을시장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페스티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유쾌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이어 "전통시장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나누는 자리이자 전통시장이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샘고을시장 한입먹거리 페스티벌'은 정읍시와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북도가 주관하고 정읍 샘고을시장 문화관광청 시장 육성사업단과 샘고을시장 상인회가 주최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이 서울지역 소비자들을 초청해 친환경 쌀 수확현장을 체험하는 '친환경 브랜드단지 체험·관측 행사'를 열었다.

## "고창에서 메뚜기 잡으며 친환경 농산물 장점 배워요"

### 친환경 브랜드단지 체험 성료

푸른 가을 하늘 아래 황금빛 웃을 같이입은 고창 들녘. 고개 숙인 벼 이삭 사이사이에서 인간과 메뚜기의 숨비꼭질이 벌어진다. 도시 주부들의 서투른 메뚜기잡이.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어린이처럼 탄성이 흘러나온다. 이 눈은 30년 전부터 농약 없이 농사를 지은 덕에 사라졌던 메뚜기가 돌아왔다. 백 마디 말보다 메뚜기를 직접 손으로 잡아보며 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셈이다. 고창군이 16~17일 서울지역 소비

자들을 초청해 친환경 쌀 수확현장을 체험하는 '2019 고창 친환경 브랜드단지 체험·관측 행사'를 열었다. 이틀간 고창군 대신면 '쌀사랑용두단지(대표 강부덕)'에서 진행된 행사는 서울 마포구(16일), 노원구(17일) 주민 300여명이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친환경 벼 수확 체험 ▲메뚜기 잡기 체험 ▲인절미 떡 만들기 활동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체험 행사는 고창출신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봉양순 서울시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동농 교류의 가교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후 서울 소비자들은 친환경 쌀, 고구마, 팥 등 고창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양산 가득 구매했고, 일부는 택배로 주문하는 등 지역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정도진 고창군 부군수는 "새로운 경험과 함께 농민들은 정성스럽게 키운 쌀을 알리고, 도시 소비자들은 친환경 쌀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제값 받는 농업실현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체납 차량 대상 유관 기관 합동단속

정읍시가 오는 25일 금요일에 지역 내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과 고속도로 입구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유관 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정읍시·정읍경찰서·한국도로공사 3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들은 시내 전역을 포함해 고속도로 이용 차량 중 자동차세·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등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체납 횟수가 1건인 경우 현장 징수와 납부 안내가 이루어진다. 2건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고질·상습 체납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와 사

실조사를 통해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 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납세 의무자에게 경각심과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며 "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체납 차량 단속가동반을 상시 운영해 지역 내 도심과 전곡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불법 명의 차량을 포함해 방치 차량과 고액체납 영치 차량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시, 저소득층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정읍시가 마스크 구매비용부담으로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한다.

시에 따르면 해마다 겨울철과 봄철이면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지속되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시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겨울철을 대비,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야외 활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지역 내 모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등 1만 2천 명에게 식품의약품

안전처 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KF-94)를 지원한다. 총예산 1억9천300만원을 투입해 2차에 걸쳐 지급되며 1인당 18매씩, 총 20만여 개의 마스크가 10월에 우선 지급된다.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는 읍·면·동과 사회복지시설 21개소를 통해 지원 대상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에 나섰다"며 "고농도 미세먼지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소통과 공감의 인문학교창

### 이호선 교수와 함께하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포럼' 성료

고창군이 17일 오후 동리국약약당에서 이호선 교수와 함께하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포럼'의 올해 마지막 시간을 진행했다.

상담심리 전문가인 이호선 교수(충남사이버대학교 교수,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소통으로 이뤄지는 올바른 인간관계 대응법을 강의했다.

특히 이호선 교수는 농업과 어업, 상업 등 도농 혼합도시 고창군의 특성을 설명하며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존재하면서 세대간, 계층간 소통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소통과 공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기준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담학 박사로 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상담을 진행해 오며 겪은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이야기하며 공감을 이끌어내는 강연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인문학 도시 고창군"은 평생교육, 정책포럼,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배우고 즐기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된 '한반도 첫수도 고창포럼'은 이번 이호선 교수의 특강을 끝으로 올해 포럼 전체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고창군 백재욱 문화예술과장은 "이제 문화적 지표가 중요한 시대인 만큼 쉽고 재미있고 다양한 인문학 강화를 통해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 SET

GIF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 SET 3세 | 750ml 1ea/12%

GIF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 SET 5세 | 375ml 5ea/13%

GIF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 SET 7세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00  
www.gangsanwine.com